

訓民正音を 사용한 漢語音 표기

— 《翻譯老乞大·朴通事》를 중심으로 —

신용권(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1. 머리말

訓民正音が 창제된 이후 이를 통해 주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訓民正音에 의한 표기는 일반적으로 고유어 표기, 외래어 표기, 외국어 표기로 나눌 수 있는데, 李基文(1972:8-9)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어 표기의 경우에는 訓民正音 本文과 解例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이를 위하여 매우 특수한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訓民正音を 사용한 외국어 표기 중에서도 漢語의 語音を 적은 표기는 핵심적인 것이며 譯學書의 편찬자들이 가장 공들인 부분이기도 하다. 訓民正音を 사용한 대표적인 漢語音 표기로는 朝鮮韻書와 譯學書에 나타난 漢語規範音 표기의 기반이 된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攷》의 표기, 《四聲通攷》 표기인 “通攷所制之字”와 일반적인 訓民正音 字體를 사용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표기인 “國俗撰字之法”을 左右로 併記한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등 《老乞大》, 《朴通事》 諺解書의 표기, 底本인 《御製增訂請文鑑》의 滿洲語 漢語音 표기를 訓民正音으로 옮겨 전사한 《漢清文鑑》의 표기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漢語音 표기 중 韻書에 표기된 漢語規範音과 현실음을 동시에 표기하여 이후 譯學書에 큰 영향을 준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訓民正音を 사용하여 漢語音を 어떻게 표기하려 노력하였는지 살펴보고, 이 문헌들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분야 연구에서의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翻譯老乞大·朴通事》에 나타난 左側音 표기의 성격과 左右音

朝鮮 中宗朝의 漢學者인 崔世珍은 舊本을 참조하여 漢語原文인 《老乞大》, 《朴通事》를 대상으로 諺解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老乞大》, 《朴通事》의 諺解書로서는 최초의 문헌인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이하 《翻譯老朴》)이다.¹⁾ 이 책의 체제는 구절단위로 漢語의 原文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된 諺解文을 붙이며 둘 사이의 경계는 圈標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漢語原文의 각 漢字 밑에는 한글로 左右에 漢語音을 표시하여 좌측음을 在左字, 우측음을 在右字라 하였고 이러한 체제는 이후 간행된 《老乞大》나 《朴通事》의 諺解書들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漢語原文의 각 한자 밑에 한글로 左右에 전사해 놓은 漢語音 表記는 왼쪽이 漢語規範音인 正音, 오른쪽이 漢語現實音인 俗音으로 나란히 正俗音이라 불렀던 것인데, 이 중 우측음은 老乞大諺解書들이 편찬되던 당시의 北方漢語音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변화가 없는 규범음인 좌측음보다는 漢語音의 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우측음에 집중되었다. 다만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의 正音 또는 俗音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좌측음은 訓民正音を 사용한 초기의 외국어 표기라는 점에서 당시 訓民正音의 音價를 추정하려는 연구자들에게 韓國語音韻史 연구의 보조적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翻譯老朴》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한

1) 이 책에 대하여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라는 書名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나, 본고에서는 관례를 따라 이 책에 대하여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라는 書名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자주 쓰이는 문헌명은 다음과 같이 문헌명과 약칭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翻譯老乞大》 = 《翻譯老》, 《翻譯朴通事》 = 《翻譯朴》, 《老乞大諺解》(顯宗本) = 《老諺》, 《朴通事諺解》 = 《朴諺》,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 = 《平老》, 《老乞大新釋諺解》 = 《老新》, 《朴通事新釋諺解》 = 《朴新》, 《重刊老乞大諺解》 = 《重老》, 《洪武正韻譯訓》 = 《譯訓》, 《四聲通攷》 = 《通攷》, 《四聲通解》 = 《通解》.

기존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左右音 표기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1 정밀전사표기(narrow transcription)

《翻譯老朴》의 左右音의 차이를 정밀전사(narrow transcription)와 간략전사(broad transcription)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翻譯老朴通事凡例”(이하 凡例) 諺音條에서는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 依國俗撰字之法, 而作字者也.”라 하여 좌측음과 우측음이 기본적으로 다른 전사체계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左右音의 전사체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주목하였다. 鄭光(1974:19)에서는 “翻譯老朴通事凡例”의 漢語音表記에 대한 장황스런 설명은 오로지 좌측음인 洪武正韻譯訓音과 우측음인 崔世珍의 得聞之音을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寫音한 것과의 차이를 규칙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朱星一(2000:71)에서도 左右音 사이의 차이는 審音 및 표기방식에 있는 것이고 左右音이 반영하는 실제 음계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張馨實(1994:52)에서는 좌측음과 우측음이 표기법에서 차이가 날 뿐 그 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좌측음과 우측음이 동일음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좌측음은 우측음보다는 약간 보수성을 띠는 口語的 正音이라고 하고 있다. 左右音의 音系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언급이나 左右音에서 동일한 음을 각각 다른 寫音方式에 의하여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향이다. 左右音의 표기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좌측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左右音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聲母, 韻母 및 入聲韻尾, 聲調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리해 보자.

(표1) 좌측음과 우측음의 차이

(1) 聲母

- ① 좌측음에는 濁音 표기가 남아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寒 한 :한

- ② 좌측음에는 齒音 영역에서 齒頭音을 “ㄱ, ㅋ, ㆁ”로, 整齒音을 “ㄴ, ㄷ, ㄹ”로 구분하여 전사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ㄴ, ㄷ, ㄹ”로 구분없이 전사하고 있다. 예) 保 :채 채
- ③ 좌측음에는 疑母가 “ㅇ”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碍 :해 ·애
- ④ 좌측음에는 影母가 “ㅇ”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愛 :해 ·애
- ⑤ 좌측음에는 微母가 “ㅁ”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많은 字들에서 사라졌다. 예) 微 :미 :위

(2) 韻母 및 入聲韻尾

- ① 좌측음에는 入聲韻尾 “ㅇ”이 남아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吉 :강 ·기
- ② 좌측음에는 藥韻에서 “ㄴ” 終聲 표기가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嚼 :쥬
- ③ 좌측음에는 “ㅁ”를 終聲 표기로 쓰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ㄴ, ㄷ”로 표기하고 있다. 예) 卯 :말 만
- ④ 좌측음에는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에서 “ㄴ”을 終聲 표기로 쓰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으며 韻母 표기에도 변화가 있다. 예) 子 :중 즈
- ⑤ 歌戈韻의 韻母 예) 鵝 :어 :오
- ⑥ 기타 韻母 표기의 차이 및 文白音의 차이

(3) 聲調

		在左字			在右字	
四聲		清濁	調值에 대한 설명(凡例)	旁點	在左字와의 비교(凡例)	旁點
平聲	陰	全清 次清	輕呼而稍舉	無點	如國音去聲之呼/ 其呼與國音去聲相似	1點
	陽	全濁 不清不濁	先低而中按 後厲而且緩	無點	如國音上聲之呼/ 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2點
仄聲	上		低而安	2點	如國音平聲之呼/ 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無點
	去		直而高	1點	與同國音去聲之呼/ 與國音去聲相同	1點
	入		直而高	1點	呼如去聲	1點
			先低後厲而促急	1點	少似平聲濁音之呼	2點

(표1)과 같이 《翻譯老朴》의 左右音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聲母에서는 좌측음이 《譯訓》 및 《通攷》에 수록된 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31개의 聲母 표기를 보이고 있다. 訓民正音 초성체계로는 31聲母를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뽕, ㅁ”과 같이 한글 초성체계에는 쓰이지 않던 표기를 채용했을 뿐 아니라 齒音의 경우와 같이 字體의 변형을 통해서 漢語音 聲母를 표음하기도 하였다. 또한 “뽕, ㅁ, △”과 濁音을 표기하는 9字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漢語音을 표기한 한글 초성의 음가가 우리말을 표기할 때의 음가와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우측음 聲母 표기의 수는 17로 좌측음에 비해서 상당히 간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韻母의 경우 좌측음에 나타나는 “ㅁ, △” 終聲 표기와 “ㄴ, ㄹ(藥韻)” 등 入聲韻尾 표기가 우측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韻母의 구조도 좌측음이 더 복잡하다. 聲調 표기의 경우는 더욱 주목을 끄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1)에서 보이는 左右音의 차이 중 많은 항목에서 좌측음이 정밀전사, 우측음이 간략전사의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凡例에서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이고 우측음은 “國俗撰字之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通解》 今俗音과 《翻譯老朴》 우측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보아도 音系 사이의 차이라기보다는 표기방식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左右音의 경우에도 표기방식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譯訓》과 《通攷》 편찬자는 漢語音을 정밀전사할 수 있는 審音能力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通攷》 凡例에는 齒頭音字와 整齒音字의 구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凡齒音，齒頭則舉舌點齒，故其聲淺，整齒則卷舌點齶，故其聲深. 我國齒聲 ㄴ ㄷ ㄹ 在齒頭整齒之間，於訓民正音，無齒頭整齒之別，今以齒頭爲 ㄴ ㄷ ㄹ，以整齒爲 ㄴ ㄷ ㄹ，以別之.”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通攷》의 편찬자는 漢語의 齒頭音字, 整齒音字의

발음위치와 방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청각적 인상까지도 정확히 서술하고 있고 현대의 음성학적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또한 韓國語 齒音인 “ㄸ, ㅌ, 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다. 따라서 中國語音에 관한 한 世宗代 연구의 영향을 크게 받은 崔世珍이 齒音 영역에 있어 좌측음은 《通攷》의 寫音方式에 충실히 따라 齒頭音을 “ㄸ, ㅌ, ㄴ”로, 整齒音을 “ㄸ, ㅌ, ㄴ”로 전사하고 우측음은 訓民正音의 일반적인 字體에 따라 “ㄸ, ㅌ, ㄴ”로 전사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표1)에 나타나는 左右音 표기의 차이를 모두 정밀표기와 간략표기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본다면 左右音의 표기 차이는 세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첫 번째는 정밀전사와 간략전사의 차이이다. 여기에는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와 齒音系 글자의 聲母 표기, “ㅁ” 終聲 표기 등이 이에 속한다. 凡例의 기록을 보자.

- (2) “通攷贊字音ㄴ, 註云俗音ㄴ. 韻內齒音諸字, 口舌不變, 故以△爲終聲然後, 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 若從通考加△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 皆去△聲, 而又恐其直從, 去△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 加△之字於右, 庶使學者必從正音, 用△作聲然後, 可合於時音矣.”(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

위의 내용은 “支(平)·紙(上)·寘(去)” 三韻에 있는 齒音字에 한하여 《通攷》의 俗音 표기로 “△”을 終聲 표기로 쓴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反譯에서 初學者가 배우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 終聲 표기를 모두 없앤 후 또한 時音에 맞지 않게 발음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좌측음에 “△” 終聲 표기를 붙인 후 凡例에 明記한 것이다. 齒音의 경우에도 좌측음에서는 본래의 漢語音대로 齒頭音과 整齒音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終聲 표기 “ㅁ”도 우측음에서는 初學者가 배우기 쉽게 國俗撰字之法으로 바꾸었다. 이들 左右音은 표기상의 차이만 보일 뿐 동일한音を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예들은 左右音의 표기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줄 뿐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2) 文白音의 차이 등에 따라 左右音의 표기가 달라지는 소수의 예는 일단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음운변화의 차이와 함께 표기상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濁音이나 入聲 표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변화는 漢語音韻史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漢語 음운체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濁音清化나 入聲소실이라는 현상이 명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음운변화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正音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좌측음에서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濁音이나 入聲 표기 등의 차이가 음운변화의 차이만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단순한 관점이다. 실제로 凡例 諺音條의 기록에서는 濁音 표기의 문제를 終聲 표기 “ㄹ, ㄴ”의 문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初學者가 익히기 까다로우므로 당시의 漢語音을 알기 쉽게 表音하기 위하여 우측음에서 새로이 마련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로서 濁音 표기를 제시해 주고 있어 여기에는 음운변화의 문제 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도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 부류에는 濁音 표기와 入聲 표기 이외에도 疑母, 影母, 微母 등의 聲母 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음운변화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면 두 번째 부류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두 번째 부류는 음운변화의 차이만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韻母에서의 차이 中歌戈韻에서 보여주는 左右音의 표기 차이나 聲調의 濁上變去 현상 등은 음운변화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左右音의 표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밀표기와 간략표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좌측음에서 《通攷》의 字體(정밀표기)를 사용하여 본래의音を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간략표기)에 의한 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中國語音에 대한 오해를 막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마치 현대의 초급 중국어교재에서 漢語拼音方案과 한글을 나란히 표기해 주는 예가 있음을 상기하게 해 준다. 또한 崔世珍이 좌측음에서 《通攷》 字體로 현실음을 표기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2.2 《洪武正韻譯訓》의 俗音 + 필자의 개정음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이고 우측음은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든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좌측음은 正音, 우측음은 俗音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³⁾ 그러나 기존의 어떤 연구도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순수하게 《通攷》의 正音을 반영한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 凡例의 正俗音條에는 俗音과 正音이 左右로 나란히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凡例의 내용이 誤記에 의한 것인지 다른 책에 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翻譯老朴》에서는 左右로 두 개의 漢語注音이 나타나고 있다.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어떤 音系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凡例에서 언급하고 있는 “正音”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凡例 正俗音條의 기록에 따르면 五方의 사람들이 다 능히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을 正音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通攷》에서는 正音을 기본으로 삼고 俗音을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⁴⁾ 正音에 대한 개념설정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通攷所制之字”인 좌측음이 正音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凡例의 기록은 역시 五方人이 다 능히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을 正音으로 삼은 《洪武正韻》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똑같은 내용이 《通解》 凡例에도 나타나고 있다.⁵⁾ 짧기는 하지만 正音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

3) 리득춘(1994)에서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凡例 正俗音條의 “書正音於右, 書俗音於左”라는 기록을 기정사실로 하고 《翻譯老朴》의 좌측음과 우측음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譯訓》의 俗音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가히 凡例의 규정과 일치하나 우측음은 《譯訓》의 正音과 일치한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譯訓》의 正音과 《翻譯老朴》의 우측음을 꼭 같다고 등호를 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측음이 凡例의 기록과는 달리 역시 正音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遠藤光曉(1984)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4) “大抵天地生人, 自有聲音, 五方殊習, 人人不同, 鮮有能一之者. 故切韻指南云, 吳楚傷於輕浮, 燕薊失於重濁, 秦隴去聲爲入, 梁益平聲似去. 江東河北, 取韻尤遠, 欲知何者爲正聲,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爲正音也. 今按本國通考槩以正音爲本, 而俗音之或著或否者, 盖多有之. 學者毋爲拘泥焉.”(凡例 正俗音條)

5) “正韻凡例云, 人居異區, 五方殊習, 而聲之所發乃有剽疾重遲之別, 故字音之呼, 萬有不同也. 欲知何者爲正聲,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爲正音也.”(《通解》 凡例 第二十三條)

넘 설정은 《通攷》 凡例에 나타나는데, 中國人이 사용하는 音 중에서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字音(正音)을 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을 俗音으로서 反切 아래에 附記한다고 하였다.⁶⁾ 여기에서 韻書란 明代의 欽定韻書인 《洪武正韻》이 대표적인 것이다.⁷⁾ 《洪武正韻》은 朝鮮時代를 통하여 中國字音의 규범으로 간주된 韻書이고 《洪武正韻》의 음은 《譯訓》, 《通攷》, 《通解》 등을 통하여 正音으로 정리되었다. 《譯訓》은 《洪武正韻》 각 韻의 小韻마다 注音를 달고 글자마다 字釋을 단 韻書이며 《通攷》는 《譯訓》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字釋을 생략하고 韻에 따라 字를 분류하여 31字母와 平·上·去·入 순으로 간략히 한 것이다. 따라서 《譯訓》과 《通攷》는 音系나 表記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正音이란 《譯訓》 또는 《通攷》의 正音인 것이다.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通攷》의 正音 體系가 아니라는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 《通攷》와 音系가 일치하는 《譯訓》의 正音, 俗音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표2) 《翻譯老朴》 左右音과 《譯訓》의 俗音, 正音

例字	좌측음	우측음	俗音	正音	例字	좌측음	우측음	俗音	正音
弓	궁	·궁	궁	궁	干	간	·간	간	건
縱	·중	·중	·중	·중	般	번	·번	번	빈
知	짚	·지	짚	지	鹽	연	:연	연	염

6) “以圖韻諸書及今中國人所用，定其字音。又以中國時音所廣用，而不合圖韻者，逐字書俗音於反切之下。”

7) 李崇寧(1971:553-554)에서는 《洪武正韻》이 世宗朝에 그리도 重視되고 또 韻書編纂의 모델인양 높이 評價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이 책이 同時代에 明의 權威를 상징하는 문헌이기 때문이다. 둘째, 世宗이 韻學에 대한 造詣가 깊은 터로 당시의 韓國漢字音에 대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派俗된 字音을 改新하려는 世宗의 의도와 明太祖의 의도가 符合됨에서 《洪武正韻》은 世宗을 크게 刺戟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洪武正韻》이 明初의 國家事業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이 아마도 朝鮮初의 지식층에게 信賴와 權威를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것이 《洪武正韻》에의 관심을 더욱 북돋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洪武正韻》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朝鮮中期 이후 이러한 刺戟이나 權威가 많이 퇴색되었다.

皆	계	·계	계	개	牙	야	:야	야	야
大	·따	·다	·따	·때	我	:어	오	:어	:어
背	·빅	·빅	·빅	·뷔	能	능	:능	능	녕
每	:믹	믹	:믹	:뮈	橫	·횡	·홍	·횡	·횡
本	:븐	븐	:븐	:분	吟	인	:인	인	임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譯訓》 및 《通攷》의 正音보다는 俗音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좌측음은 《通攷》의 俗音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좌측음이 구현하는 正音이란 《通攷》의 正音 체계와 같은 漢語規範音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좌측음을 正音이라 칭한다면 다른 含意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翻譯老朴》에 나타나는 正音의 성격에 대해 張馨實(1994)는 “口語的 正音”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朴炳采(1983), 李敦柱(2003) 등에서도 《譯訓》, 《通攷》, 《通解》의 俗音을 전통적인 正音과 대비하여 현실적인 正音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正音이지만 會話書라는 특성때문에 韻書에 수록된 正音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會話書이므로 韻書와는 달리 正音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작다. 그러나 18세기 刊本 老乞大諺解書부터 좌측음이 正音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면 會話書라고 꼭 正音이 무시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결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會話書라고 할지라도 正音이 기재되어야 할 당위성은 있으나 편찬자의 판단에 의하여 韻書的 正音은 배제되고 현실적인 正音이 등재된 것이다.

姜信沆(1973, 1974)에서는 《通攷》 俗音이 좌측음에 기록되어 좌측음은 곧 《通攷》 俗音이라고 하고 있다. (표2)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通攷》의 正音보다는 俗音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후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좌측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通攷》 俗音으로 단정하는 것은 세심하지 못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通攷》의 俗音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경향일

뿐 좌측음과 《通攷》 俗音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張馨實(1994), 朱星一(2000) 등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朱星一(2000:75)의 조사에 의하면 《翻譯老朴》에 출현하는 1,807字 중 좌측음이 《譯訓》의 俗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82字라고 한다.⁸⁾ 일치하지 않는 字들을 일부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차이를 보이는 《翻譯老朴》 좌측음과 《譯訓》 俗音⁹⁾

例字	좌측음	譯訓俗音	例字	좌측음	譯訓俗音	例字	좌측음	譯訓俗音
大	·때	·따	關	권	(관)	鴈	·연	·얀
支	중	징	謎	·미	·미	顏	연	얀
至	·중	(·징)	減	:견	(:간)	水	:쉬	:싱
盤	뻔	(뻔)	哺	·부	(·뿌)	姦	견	(간)

(표2), (표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측음이 《通攷》의 순수한 正音 또는 俗音を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좌측음의 경우 《譯訓》 및 《通攷》의 寫音方式을 기초로 한 俗音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표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字의 俗音 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자의 개정음을 싣고 있다. 《翻譯老朴》을 편찬할 당시 崔世珍의 주요한 관심사가 《通攷》의 音과 實際音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좌측음이 아무리 “通攷所制之字”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필자의 개정음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좌측음에서 改定한 音들은 보다 현실음에 가까운 경향을 보여 준다.

8)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朱星一(2000:75-78)은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시 兩讀 현상이 있었다. 둘째, 각각 다른 시기 語音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넷째, 편찬자의 誤記나 版刻상의 錯誤에 기인한 것이다.

9) 《譯訓》의 俗音 표기 중 괄호를 친 것은 해당하는 漢字에는 직접 俗音 표기가 달려있지 않고 해당 小韻의 대표자에 俗音 표기가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 漢字에 正音 표기만이 존재하므로 이 漢字에서는 “正音 = 俗音”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翻譯老朴》에서 漢語注音를 “俗音(+개정음) : 필자의 得聞之音”으로 배열한 이유는 무엇일까?¹⁰⁾ 張馨實(1994:49-50)에서는 《翻譯老朴》의 좌측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通攷》의 字體를 이용하여 본래의 음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려 한 것이다. 즉 우측음이 國俗撰字之法에 의한 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中國語音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현실음에서 음운변화를 마친 음은 口語的 正音이 되나 음운변화의 과정에 있었던 음은 변화입기 전의 음을 正音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좌측음과 우측음이 표기의 성격과 음운변화의 측면에서 그 주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張馨實(1994)의 언급은 정확히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¹¹⁾

10) 鄭光(1974:19-21)에서는 《譯訓》의 음과 《老乞大》·《朴通事》의 翻譯音과의 中國語音 寫音上 齟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하고 있다. 첫째, 《譯訓》에 從事한 集賢殿學者들이 韻學에 대한 지식이 지나쳐서 中國韻書의 一聲一韻을 모두 訓民正音 初中終聲으로 對譯함으로써 실제 국어로는 발음 불가능한 文字를 만들어 내어 中宗朝 譯官들이 그 文字를 정확히 발음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 《譯訓》이 대상으로 한 中國語 方言音과 《老乞大》, 《朴通事》 翻譯 당시 得聞한 中國語 方言音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차이를 가져왔을 경우. 셋째, 中國語音을 轉寫한 訓民正音의 音價가 시대적으로 달랐던 것과 관계가 있다.

11) 좌측음의 성격에 대한 제견해 중 좌측음을 南方音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주목할만하다. 安奇燮(1988:97)에서는 좌측음은 南方音의 반영이고 우측음은 순전한 北方音의 기록이라고 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朝廷에서의 中國語教育의 목적이 주로 외교업무 수행에 있었으며 明朝의 北京으로의 遷都(1421년)가 곧바로 南方語音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은 바, 적어도 당시에는 南方과 北方의 현실어음을 함께 익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俗音 또는 今俗音의 표기를 귀납한 語音體系내에 《中原音韻》이나 《韻略易通》류의 同時期 語音資料가 보이는 部分 語音現象, 주로 韻母 중심의 대체적인 공통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北方語音의 반영이라 여기고 다수의 非北方音의 요소에 대해서는 南方音의 混入이라는 예외현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시킨 이해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譯訓》의 俗音과 대체로 부합되는 《翻譯老》와 《翻譯朴》의 좌측음은 불과 60여년 뒤의 현실음인 우측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譯訓》의 俗音이 北方音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60여년 사이에 이같이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翻譯老》의 좌측음이 南方音을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譯訓》, 《通攷》의 俗音 및 좌측음이 31聲母體系를 유지하고 이것이 南方音을 반영한다고 하는 핵심적인 근거이나 이는 北方漢語를 반영하나 진행중인 음운변화는 수용하지 않는 口語的 正音의 성격에 기인했을

결론적으로 말해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通攷》 俗音 + 편찬자의 개정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翻譯老朴》에서 좌측음이 이처럼 《通攷》 俗音과도 차이를 보이며 보다 현실적인 음으로 일부 개정하였다는 것은 역시 좌측음을 등재한 목적이 漢語規範音を 보여 주겠다는 것과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편찬자인 崔世珍은 《翻譯老朴》의 좌측음에 현실음의 성격을 가진 注音를 행함으로서 역시 자신이 편찬한 韻書인 《通解》의 正音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성격의 正音を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의 會話書에 부합하는 새로운 注音 방식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翻譯老》 이후의 老乞大諺解書에서는 漢語音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翻譯老》와 《老乞大諺解》(1670)의 좌측음은 凡例의 언급과는 달리 《通攷》 俗音 위주로 되어 있고 편찬자의 개정음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에 반해 18세기에 간행된 老乞大諺解書인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序), 《老乞大新釋諺解》(1763), 《重刊老乞大諺解》(1795이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洪武正韻》의 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洪武正韻》이 底本인 이상 《譯訓》및 《通攷》가 俗音에서도 《洪武正韻》 音系에 이끌렸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초기의 譯學者나 《譯訓》, 《通攷》의 편찬자들이 주로 왕래한 곳이 北方지역이었고 근거로 삼고 있는 31聲母體系나 入聲의 보류라는 현상만을 놓고 볼 때도 南方音의 영향인지 또는 변화를 입기 전의 北方音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翻譯老》 좌측음은 《譯訓》, 《通攷》의 俗音 뿐 아니라 필자의 개정음도 들어 있는데 이는 보다 北方의 현실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준다. 둘째, 필자는 《翻譯老》 좌측음과 우측음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通攷所制之字：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 체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翻譯老》의 좌측음이 불과 60여년 뒤의 현실음인 우측음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표기체계의 차이와 함께 현실적 正音인 좌측음과 당시의 현실음인 우측음 사이의 성격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비록 시간상의 차이는 60여년이나 당시 北方漢語에서 음운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고려해 볼 때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좌측음과 음운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우측음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安奇燮(1988)의 견해가 南方音의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좌측음이 南方音을 반영한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 《譯訓》, 《通攷》 편찬 당시의 南方音 및 南方通語와 함께 당시 北方漢語音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좌측음과의 세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譯訓》, 《通攷》 편찬자들이 南方에서 語音을 조사한 기록이나 南方人과의 접촉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좌측음에서는 入聲韻尾와 支紙寘 三韻의 終聲 表記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기본적으로 《譯訓》의 正音を 반영해 주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표4) 5종 老乞大諺解書에서의 좌측음 표기

例字	翻老	老諺	平老	老新	重老	譯訓正音
弓	궁	궁	궁	궁	궁	궁
恐	:쿵	쿵	쿵	쿵	쿵	:쿵
時	쑤	쑤	쑤	쑤	쑤	씨
支	쑤	쑤	쑤	쑤	쑤	지
計	·기	기	계	계	계	·계
迷	미	미	메	메	메	메
解	:게	게	개	개	개	:개
皆	계	계	개	개	개	개
那	·나	나	너	너	너	·너
大	·따	따	때	때	때	·때
滿	:면	면	뎨	뎨	뎨	:뎨
般	번	번	뎨	뎨	뎨	뎨
伴	:뎨	뎨	뎨	뎨	뎨	:뎨
貪	탄	탄	탐	탐	탐	탐
謙	컨	컨	컴	컴	컴	컴
今	긴	긴	김	김	김	김

여기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平老》의 좌측음 표기인데 《平老》는 《老諺》의 復刊本이라 불려도 과언이라 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모습에서 大同小異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유독 좌측음이 《老諺》과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老乞大》, 《朴通事》의 諺解書들이 이전의 刊本을 수정 편찬하여 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時用性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平老》의 경우에는 漢語原文에 별다른 수정도 가해지지 않았고 諺解 부분이나 우측음에서도 《老諺》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時用性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좌측음에서 유독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문헌의 간행목적이 時用性 확보가 아닌 다른 목적이 관여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飜老》와 《老諺》에서는 凡例에 나타나는 규정과는 달리 좌측에 대부분 《通攷》의 俗音を 표기하였는데 凡例에 규정된 正音 자리에 俗音を 표기함으로서 左右에 15세기와 16세기의 漢語音を 並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8세기 간행 老乞大諺解書의 편찬자의 관점으로는 표기 방식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前時代의 현실음과 편찬 당시의 현실음을 並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洪武正韻》에 기반을 둔 漢語規範音은 《譯訓》, 《通攷》, 《通解》 및 그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는 《奎章全韻》을 통해 꾸준히 정리되었을 만큼 韻書 편찬자들에게 중시되었던 존재였고, 이러한 상황이 실용적인 회화책인 《老乞大》나 《朴通事》의 諺解書에서 각 漢字 밑에 正俗音を 並記하는 표기를 남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처럼 중시된 漢語規範音 즉 正音이 《飜老》와 《老諺》을 통해 소외되었고 소외된 이유도 18세기 간행 老乞大諺解書 편찬자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飜老》를 답습하여 좌측음을 《飜老》와 동일하게 표기한 《老諺》의 시행착오를 《平老》에서 바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4)에 보이는 것처럼 《老新》과 《重老》의 좌측음도 正音 체계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측음이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正音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左右音의 성격 차이 때문에 18세기 刊本 老乞大諺解書에서는 좌측음이 오히려 韻書의 正音에 가깝게 회귀하고 우측음은 생생한 음운변화를 반영함으로써 左右音의 音系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벌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우측음의 경우 《飜老》와 《老諺》은 150여년의 간격이 있으나 微母의 완전한 소실, 일부 日母의 兒化, 일부 전사 표기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飜老》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우측음에 있어서의 이러한 보수성은 《平老》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18세기 刊本임에도 《老諺》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平老》의 편찬 목적이 時用性的의 확보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老新》에서 보이는 우측음의 개정은 편찬자들이 北方漢語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老新》에서는 見母系 구개음화 뿐만 아니라 日母의 변화, 撮口呼로의 변화와 기타 韻母의 변화 등 음운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老新》이 時俗에 맞춰 漢語音이나 漢語原文을 개정하려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老新》의 우측음은 《老乞大》의 諺解書로는 최종본인 《重老》의 우측음과 완전한 일치를 보여 준다. 이는 金完鎭(1992:20)의 언급처럼 《重老》의 편찬이 時用性 확보라는 의도보다는 《奎章全韻》의 편찬과 함께 正祖의 문화 정비 사업적 측면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현실음을 나타내는 우측음에서 《重老》가 《老新》의 편찬시 조사한音を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現實音인 우측음 역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諺解書가 典據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전에 간행된 諺解書이기 때문이며 특히 《翻老》의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따라서 편찬자들은 음운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이전의 諺解書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正音인 좌측음에서까지 현실음을 반영하였던 崔世珍의 태도와 한편으로는 대비되는 점이 있다.

2.3 소실된 문헌의 漢語音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라는 제목에서 보이는 “翻譯老乞大”라는 명칭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언급할 수 없으나 어쨌든 左右의 漢語音 표기에 대해서는 이 凡例에 관련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 몇 가지가 崔世珍이 편찬한 현존하는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 상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문제가 되는 正俗音條의 기록이다.

- (3) “凡字有正音，而又有俗音者。故通攷，先著正音於上，次著俗音於下。今見漢人之呼，以一字而或從俗音或從正音，或一字之呼，有兩三俗音，而通攷所不錄者多焉。今之反譯，書正音於右，書俗音於左，俗音之有兩三呼者，則或書一音於前，又書一音於後，而兩存之。”(正俗音條)

밑줄 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록에 대하여 金完鎭(1973, 1976)에서는 誤記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박태권(1976, 2002), 安秉禧(1996)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기록을 단순한 誤記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俗音이 두 개 또는 세 개 있는 경우도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注音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의 凡例 조항에서도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와는 다른 내용이 나타난다.

- (4) “今之反譯，漢字下在左，諺音並依國語高低而加點焉。但通攷內，漢音字旁之點，雖與此同，而其聲之高低，則鄉漢有不同焉。詳見旁點條。”(國音條)
- (5) “通攷贊字音즈，註云俗音증. 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故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若從通考加△爲字，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皆去△聲，而又恐其直從，去△之聲，則必不合於時音，今書正音，加△之字於右，庶使學者必從正音，用△作聲然後，可合於時音矣.”(支紙眞三韻內齒音諸字條)

밑줄친 부분의 “今之反譯，漢字下在左，諺音並依國語高低而加點焉”이나 “今書正音，加△之字於右”라는 기록도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 상황과 비교하여 “右”가 “左” 또는 “左”가 “右”로 잘못 쓰여진 경우인데, 길지도 않고 공을 들여 교정하는 凡例안에서 誤記가 이처럼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凡例의 기록에 의하면 좌측음은 正音, 漢音 등으로 불리고 우측음은 俗音, 諺音, 反譯音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¹²⁾ 여기서 “反譯”이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학습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國俗撰字之法에 의거하여 漢語音を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誤記인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凡例의 내용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凡例의 내용 중 내용상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을 아래에서 다시 비교하여 검토해 보자.

- (6) “在左者，卽通攷所制之字，在右者，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通攷

12) 여기에서 좌측음이 正音, 우측음이 俗音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凡例에서의 문제가 되는 기록들이 誤記에 근거한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잠정적으로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좌측음과 우측음의 명칭은 翻譯老朴通事凡例에 나타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字體，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其用雙字爲初聲，及ㄹ ㄴ 爲終聲者，初學雖資師授，率多疑碍，故今依俗撰字體，而作字如左云。”(諺音條)

(7) “在左字旁之點，則字用通攷所制之字，故點亦從通攷所點，而去聲入聲一點上聲二點平聲無點。在右字旁之點，則字從國俗編撰之法而作字，故點亦從國語平仄之呼而加之。”(旁點條)

(8) “凡字有正音，而又有俗音者。故通攷，先著正音於上，次著俗音於下。今見漢人之呼，以一字而或從俗音或從正音，或一字之呼，有兩三俗音，而通攷所不錄者多焉。今之反譯，書正音於右，書俗音於左，俗音之有兩三呼者，則或書一音於前，又書一音於後，而兩存之。”(正俗音條)

(6), (7)의 기록은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상황과 일치하나, (8)의 기록은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6), (7), (8)을 종합해 보면 “좌측음 = 通攷所制之字 = 俗音”, “우측음 = 國俗撰字之法 = 正音”이라는 다소는 이해하기 힘든 공식이 성립되는데 正音과 俗音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위의 공식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翻譯老朴通事凡例”에서는 正音과 俗音에 대하여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 주지 않아서 《翻譯老朴》에서 이들이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변 기록을 통해 대체적인 모습은 파악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正音이란 일반적으로 中國人이 사용하는 音 중에서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字音を 정한 것이다. 朝鮮初期에 中國音의 표준으로 간주된 韻書는 《洪武正韻》으로 이 책의 音은 《譯訓》, 《通攷》, 《通解》 등을 통해서 꾸준히 正音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譯訓》과 《通攷》 및 《通解》는 音系나 表記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正音이란 《譯訓》, 《通攷》 및 《通解》의 音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通攷所制之字”인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당연히 “國俗撰字之法”인 우측음보다 正音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正俗音條, 國音條, 支紙眞三韻內齒音諸字條 등에 나타난 正音과 俗音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 상황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³⁾

13) 첫 번째 가능성은 기존의 견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誤記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일부 연구자는 凡例 기록과 《翻譯老朴》 漢語音의 실제 표기 상황이 차이가 나고 凡例의 내용이 오로지 漢字의 漢語音を 한글로 표기한 注音에 대한 것임을 근거 삼아 《翻譯老朴》 이전에 漢語音만을 注音한 다른 문헌이 존재했으며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는 이 문헌의 凡例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老朴集覽》 凡例에 나오는 기록이다.¹⁴⁾ 이 기록에는 “反譯”과 “諺解”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각각의 書名으로 보기도 한다.¹⁵⁾ 이 두 명칭을 書名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더 연구해야 할 여

다. 正俗音條의 기록과 같이 《翻譯老朴》의 실제 표기 상황과 차이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凡例의 조항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 항목들 중 어떤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복수의 俗音 표기가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誤記라고 보기 어려우며, 凡例의 기록과 달리 복수의 俗音 표기는 이 책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는 崔世珍이 諺解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翻譯老》와 《翻譯朴》의 凡例가 아니라 지금은 전하지 않으나 漢字의 한글注音를 갖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凡例라는 것이다. 한글注音만을 달아 놓은 이 책의 注音 가운데서 通攷音과 함께 國俗撰字의 방법으로 표기한 注音 두 가지만 諺解書인 《翻譯老朴》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현재 통용되는 《翻譯老朴》의 漢語音 표기가 凡例 기록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注音만을 달아 놓은 “翻譯老乞大朴通事”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주장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추측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관점으로는 凡例 항목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상황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校正을 행하였거나 편찬자인 崔世珍이 反譯에 임하면서 세웠던 漢語注音 표기의 원칙이 실제 《翻譯老朴》의 편찬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金完鎭(1973:7)에서는 凡例가 內容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校正의 名目아래 毀損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李敦柱(2003:333)에서도 原文에 누락된 곳이나 誤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凡例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의구심이 나는 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凡例에 나타나는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역시 추측에 그칠 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校正을 행하였는지 본래의 漢語注音 표기 원칙이 《翻譯老》의 편찬과정에서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凡例에 나타난 복수의 俗音 표기의 문제도 해명하기 어렵다.

14) “諺音及字旁之點，皆從鄉語鄉音，詳見反譯凡例。”(第一條) “兩書諺解，簡帙重大，故朴通事分爲上中下，老乞大分爲上下，以便繙閱。”(第八條)

15) 李敦柱(2003:329)에서는 “反譯凡例”란 곧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反譯”이란 《老乞大》와 《朴通事》의 中國語音を 崔世珍이 당시의 時音에 맞도록 한글로 표음한 것인데 “翻譯”이란 곧 이를 가리킨

지가 있지만 둘은 분명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박태권(2002:46)에서는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가 성립된 과정에 대해 먼저 中國語音에 대한 훈민정음 寫音만을 단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를 내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諺解 老乞大·朴通事》를 저술하였으며 《老朴集覽》 凡例에 나오는 기록대로 그 簡秩이 重大한 諺解의 繙閱에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老朴集覽》과 아울러 지금 전하고 있는 崔世珍의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가 분책 편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安秉禧(1996:8-10)에서는 凡例와 漢語音 표기에 대한 세밀한 고찰에 근거하여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는 《老乞大》와 《朴通事》를 崔世珍이 諺解한 책으로 學界에서 통용되는 《翻譯老》와 《翻譯朴》의 凡例일 수 없으며 지금 전하지 않으나 漢字의 한글注音만을 갖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凡例라고 단정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더 나아가 諺解 없이 한글注音만을 달아 놓은 두 책의 注音 가운데서 四聲通攷音과 이른바 國俗撰字의 방법으로 표기한 注音의 두가지만 諺解書인 《翻譯老》와 《翻譯朴》에 옮겨 적은 것이라 추정하였다. 결국 현재 통용되는 《翻譯老》와 《翻譯朴》의 漢語音 표기가 凡例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 이와 같은 원인에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安秉禧(1996)은 관련서적들의 편찬과정에 있어서는 박태권(1976/2002)와 견해를 달리하는데, 安秉禧(1996:9)에서는 한글 注音만을 단 “翻譯老乞大朴通事”의 편찬이 앞선 것은 인정되나 諺解書 두 종류가 《老朴集覽》의 앞뒤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수증하기 어렵다

뜻으로 보기 때문이다. 安秉禧(1996:9)에서도 《四聲通解》 凡例에 反切을 “翻譯切之式”이라 한 바와 같이 당시에 “翻譯”과 “反譯”은 음과 뜻이 똑같은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다.

- 16) 《翻譯老》가 간행된지 150여년후에 《老乞大諺解》(顯宗本)가 간행되는데 《翻譯老》에 이끌린 결과인지 우측음에서 극소수의 字를 제외하고는 漢語注音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金完鎭(1976:17-19)에서는 《老諺》의 편찬자들이 《翻譯老》를 보면서 諺解에 임했을 것이 분명한 이유로 凡例 正俗音條에 나타난 기록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漢字 밑에 正音과 俗音を 左右로 並記하는 방식은 《翻譯老》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와 같은 방식이 《老諺》에 再現될 수 있는 길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를 통한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翻譯老》없이 凡例 正俗音條의 기록에 의지하여 顯宗朝의 《老諺》 편찬자들이 《翻譯老》의 體裁와 일치하는 漢語注音 양식을 재현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凡例의 기록과 《翻譯老》의 실제 표기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면서 한글 注音만을 단 “**翻譯老乞大朴通事**”가 편찬된 뒤에 諺解書인 《**翻譯老朴**》이 《**老朴集覽**》과 동시에 편찬, 간행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李敦柱(2003:329)에서도 崔世珍의 《**翻譯老朴**》에 대한 작업 순서가 먼저 反譯을 완성한 후 《**老朴集覽**》을 저술함과 거의 동시에 전체를 諺解한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反譯(翻譯)과 諺解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의 주장은 관련 기록과 실제 표기 상황에 근거하고 있고 《**翻譯老朴**》의 漢語音 표기가 凡例와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글 注音만을 달아 놓은 “**翻譯老乞大朴通事**”가 전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 책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두 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위의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해도 추측에 근거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방증을 찾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3. 《**翻譯老朴**》에 나타난 聲調 표기

聲調와 관련된 문제는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에 나타난 漢語音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초의 **老乞大朴通事** 諺解書인 《**翻譯老朴**》에 표시된 旁點과 凡例에 언급된 당시 聲調 상황에 대한 기록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주요한 이유는 《**翻譯老朴**》에 표시된 旁點은 15, 16세기경의 漢語 聲調를 표시한 것으로 당시 漢語 聲調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國俗撰字之法에 의거하여 國語漢字音의 聲調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國語漢字音의 聲調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이 자료들은 15, 16세기경의 漢語 聲調 연구와 中世國語 聲調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凡例 旁點

條에서는 다른 부분의 漢語音 표기와 마찬가지로 聲調 표기를 하는 데 있어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字體가 아니어서 漢語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학습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우측음을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들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¹⁷⁾ 旁點條의 기록을 통해 좌측음은 다소 인위적 성격이 있으며 실제 國語 聲調와는 차이가 나는 《通攷》의 漢語 聲調 표기이고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國語 聲調 표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 우측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聲調와 관련된 여러 凡例의 조항 중에서도 旁點條는 左右音 聲調 표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漢語와 國語의 聲調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16세기경의 漢語와 國語 聲調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¹⁸⁾ 또한 旁點條의 기록은 左右音 聲調 표기 체계를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될 뿐 아니라 漢音條와 함께 당시의 漢語와 中世國語 聲調의 調值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金完鎭(1973/1989:10)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左右音의 聲調 표기가 같은 術語 같은 加點의 원리에 의거하고 있기는 해도 그 術語 또는 記號가 國語를 위해서 쓰였을 때와 中國語를 위해서 쓰였을 때와의 사이에는 거기 담긴 音聲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임을 저자인 崔世珍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聲調와 관련된 凡例의 내용을 참고하고 《翻譯老朴》에 나타난 聲調 표기를 고찰하여 左右字의 聲調 표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翻譯老朴》 左右字의 聲調 표기와 凡例의 관련 기록

		在左字			在右字	
四聲		淸濁	調值에 대한 설명(凡例)	旁點	在左字와의 비교(凡例)	旁點
平聲	陰	全淸 次淸	輕呼而稍學	無點	如國音去聲之呼/ 其呼與國音去聲相似	1點

17) “在左字旁之點，則字用通攷所制之字，故點亦從通攷所點，而去聲入聲一點上聲二點平聲無點。在右字旁之點，則字從國俗編撰之法而作字，故點亦從國語平仄之呼而加之。”

18) 실제로 旁點條를 비롯한 凡例의 관련 기록은 許雄(1955)에서 中世國語 旁點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中世國語 聲調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여 왔다.

	陽	全濁 不清不濁	先低而中按 後厲而且緩	無點	如國音上聲之呼/ 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2點
仄聲	上		低而安	2點	如國音平聲之呼/ 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無點
	去		直而高	1點	與同國音去聲之呼/ 與國音去聲相同	1點
	入		直而高	1點	呼如去聲	1點
			先低後厲而促急	1點	少似平聲濁音之呼	2點

위에 나타난 《翻譯老朴》의 聲調 표기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輕聲을 표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표기나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둘째, 陰平과 去聲이 동일한 표기로 묶여 있다. 셋째, 現代北京語의 聲調 상황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들은 漢語史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나 본고의 논의와는 큰 관계가 없어 본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실만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래의 (표6)은 凡例 기록에 근거하여 당시 國語와 漢語의 聲調가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정리한 비교표이다.

(표6) 《翻譯老朴》 凡例에 기록된 漢語와 國語 聲調의 대응 관계

漢語 聲調			대응관계	대응되는 國語(漢字音) 聲調			
聲調		旁點	凡例기록	聲調	추정 調值 ¹⁹⁾		旁點
					河野(1951)	金完鎮(1973)	
平聲	陰	無點	如/相似	去聲	高(平)	高	1點
	陽	無點	如/同	上聲	先低後高	低高	2點
仄聲	上	2點	如/同	平聲	低(平)	低	無點
	去	1點	同/相同	去聲	高(平)	高	1點
	入	1點	如	去聲	高(平)	高	1點
		1點	少似	上聲	先低後高	低高	2點

19) 이 추정 調値는 《訓民正音》 諺解本에서의 俠注 기록 등을 주요 근거로 하여 설정한 것이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에 나타난 聲調 표기를 통해 左右音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聲調 표기는 左右音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漢語音의 성격 문제를 고찰할 때 聲調 표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凡例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翻譯老朴》에서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로 《通攷》의 寫音方式을 따른 것이고 우측음은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字體인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러한 기본원칙은 聲調 표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左右音에 동일한 聲調 표기가 찍혀 있더라도 그 내용은 다른 것인데, 좌측음에서 《通攷》의 旁點을 사용하여 전문가적 표기를 한 것을 우측음에서 國語의 高低에 의거한 聲調 표기를 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聲調 표기 측면에서 보면 우측음은 한국인의 漢語 학습을 위해 調值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한정된 수의 한국어 聲調로 漢語 聲調를 표시한 苦肉之策인 것이다. 이 외에 좌측음에서 《通攷》에 나타난 漢語 聲調 표기를 사용하여 본래의 漢語 聲調를 정밀히 표기함으로서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에 의한 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漢語 聲調에 대한 오해를 막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전사표기와 간략전사표기의 측면만으로는 《翻譯老朴》에 나타난 左右音의 聲調 표기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리해 보면 좌측음과 우측음의 차이는 “通攷所制之字” 대 “國俗撰字之法”, 申叔舟의 表音方式 대 崔世珍의 表音方式, 전문가 표기 대 학습을 위한 표기, 현대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밀전사표기 대 간략전사표기에 있다. 물론 歌戈韻 표기나 濁上變去의 예처럼 左右音 표기에는 음운변화의 차이도 나타난다. 즉 漢語音에 대한 전통적인 표기법과 편찬자의 현실음에 대한 표기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翻譯老朴》에 나타난 左右 聲調 표기의 성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老諺》 및 그 이후의 판본들에서는 문헌에서 旁點이 사라졌지만, 현재 전하는 일부의 《朴新》과 奎章閣 소장본인 도서번호 “奎 4866”의 《重老》 漢字 左右에는 聲調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朱點을 찍어 놓고 있다. 이들 문헌에는 우측 1점, 우측 2점, 좌측 1점 및 “<”와 “>”의 다섯 종류 표기가 나타나는데, 《翻譯老朴》 및 現代北京音의 각 漢字 聲調와의 대조를 통해 대체적으로

우측 1점은 陰平과 去聲, 우측 2점은 陽平, 좌측 1점은 上聲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측음 聲調 표기에서 《翻譯老朴》과 上聲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전체적인 표기 체계는 《翻譯老朴》의 聲調 표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와 “>” 표기는 뒤에 오는 聲調 환경에 규칙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變調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표기가 나타내는 變調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후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菅野裕臣(1977:405-407)에 따르면, 司譯院 漢學書에는 《翻老》와 《奎4866》에 나타나는 표기 외에 또 다른 종류의 聲調 표기가 존재한다. 이처럼 《翻譯老朴》부터 일부 《朴新》과 《重老》 刊本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聲調 표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동안 적어도 漢語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譯學者나 譯官과 같은 계층에서는 그들 나름의 漢語 聲調 전사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翻譯老朴》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濁音과 入聲 표기는 《翻譯老朴》에 나타난 左右音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것으로 필자는 현재 《翻譯老朴》에 나타난 入聲 표기와 관련하여 濁音 문제와 함께 별도의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翻譯老朴》에 나타난 濁音 및 入聲 표기와 관련하여 이후의 주요 연구 방향에 대해서만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翻譯老朴》에 나타난 濁音 표기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翻譯老朴》에서 濁音을 各字並書를 사용하여 표기한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평음, 격음, 경음으로 구성된 한국어 장애음 체계와 무성음(무기음, 유기음), 유성음으로 구성된 당시 北方 漢語의 장애음 체계를 대비해 볼 때 당시 漢語의 유성음을 漢語 전사표기체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국어의 경음으로 표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나 당시 한국어의 경음과 漢語의 유성음 사이에 어떤 음성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²⁰⁾

둘째,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 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通攷字體 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 其用雙字爲初聲, 及 ㄹ ㄴ 爲終聲者, 初學雖資師授, 率多疑碍, 故今依俗撰字體, 而作字如左云.”라는 凡例 諺音條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濁音 표기의 문제를 終聲 표기 “ㄹ, ㄴ”의 문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좌측음에서는 濁音이 모두 보존되어 있고 우측음에서는 모두 淸化하였다는 사실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찬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左右音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언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翻譯老朴》에 나타난 이러한 濁音 표기의 양상이 과연 당시의 漢語에서 濁音 변화가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좌측음의 濁音 표기나 入聲 표기는 정밀표기로서의 측면과 음운변화가 완료되기 전의 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측음의 상황과 함께 고려한다면 北方漢語에서 濁音과 入聲이 완전히 소실한 시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入聲 표기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入聲의 표기 상황은 北方漢語 音韻史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方言의 상황을 반영하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入聲 표기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에 나타난 入聲 표기 문제를 고찰할 때 그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잘 파악해야 한다. 즉 이 入聲 표기는 표기상의 차이와 함께 음운변화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濁音淸化나 入聲 변화는 漢語音韻史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으로 漢

20) 예를 들어 현대에 영어의 “dance”를 “댄스”, “game”을 “게임”과 같이 발음하는 예가 있음을 상기해볼만하다.

語 음운체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入聲 소실이라는 현상이 명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음운변화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正音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좌측음에서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濁音이나 入聲 표기에서의 左右音 차이가 음운변화의 차이만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단순한 관점이며 이와 관련된 凡例의 조항도 있다. 濁音과 入聲 표기는 初學者가 익히기 까다로우므로 당시의 漢語音을 알기 쉽게 表音하기 위하여 우측음에서 새로이 마련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로서 여기에는 음운변화의 문제 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도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좌측음에서는 “ㅇ”이나 “병(藥韻)”을 入聲 韻尾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측음에서는 入聲 韻尾가 없는데, 이를 우측음에서 入聲이 소실된 것을 반영한다고 단순하게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우측음에서는 韻尾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平上去 三聲 표기와는 또 다른 표기가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좌측음에서 入聲韻尾로 표기하고 있는 “ㅇ”과 “병”이 入聲 소실의 어떤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藥韻의 入聲 韻尾 “병”은 《蒙古字韻》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표기인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濁音이나 入聲 표기 문제는 漢語音 표기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사항으로 16세기 당시 北方漢語에서 이미 종료 단계에 이르고 있었던 濁音淸化와 入聲 소실이라는 음운변화의 현실을 《翻譯老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와 함께 당시 文白音에 대한 상황, 左右音 표기의 성격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둘째, 《翻譯老朴》 우측음에서는 入聲에 대하여 두 종류의 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入聲의 존재는 중국의 전통적인 韻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入聲이 두 종류로 표기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入聲이 두 종류로 표기된 것은 現代漢語方言의 예를 통해 보면 일부 江西方言처럼 陰陽으로 분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吳方言이나 閩方言 일부처럼 入聲 韻尾는 소실하였으나 入聲은 남아있는 入聲自成調類의 상태일 수도 있으며 現代北京語처럼 入聲의 완전 소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遠藤光曉(1984:170)에서는

“促急”이라는 기본 성격을 가진 入聲의 分化 조건으로 高母音인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분화 조건에 대해서는 더 심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翻譯老朴》 入聲 표기에 대한 고찰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표기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러한 분화가 나타난 원인과 조건을 고찰하는 것이다.

셋째, 《翻譯老朴》 漢語音의 전체적인 모습은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지역에서 통용된 官話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문헌에 나타난 入聲 표기의 상황은 現代北京音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방언 배경에 의심을 품게 한다. 北方方言을 반영하는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入聲의 상황이 北方方言의 중심인 現代北京方言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翻譯老朴》의 入聲 표기가 16세기경의 北京方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당시의 北京方言이 아닌 北方方言의 다른 하위방언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 北方官話의 성격에 대한 파악과 함께 北方方言의 하위방언들에 대한 폭 넓은 고찰이 필요하며 《翻譯老朴》의 入聲 표기가 당시의 北京方言 聲調를 반영한다면 당시 언어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翻譯老朴》에서 訓民正音을 사용하여 표기한 左右音의 상황을 분석하여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音의 성격이나 左右音을 並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 수량에 있어서는 많다고 볼 수 없으나 주목할만한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측면들만을 다루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 기초 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左右音의 성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相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 방식의 차이로 좌측음은 《四聲通攷》의 전사음인 “通攷所制之字”이고 우측음은 漢語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字體인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즉, 좌측음은 정밀전사표기이고 전문가를 위한 표기이며 韻書적인 표기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우측음은 간략전사표기이고 漢語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표기이며 漢語 학습서 표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左右音은 음운변화의 반영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좌측음은 음운변화 과정 중의 語音을 반영하지 않는 규범음의 성격을 가진 반면 우측음은 비록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좌측음에 비해서는 음운변화의 과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반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翻譯老朴》 左右音의 차이는 주로 전사 방식과 음운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音은 漢語音韻史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朝鮮時代에 漢學者들이 訓民正音으로 漢語音을 표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는 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漢語音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國語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漢語音韻學과 國語學의 경계선상에 있는 연구주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翻譯老朴》의 漢語音 표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國語學者들과 함께 漢語音韻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中國語學者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姜信沆(1973),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姜信沆(1974),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音系>, 《震檀學報》 38.
 姜信沆(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國語學》 7.
 姜信沆(1985),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塔出版社.
 菅野裕臣(1977), <司譯院漢學書에 記入된 近世 中國語의 聲調表記>,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 金完鎭(1973),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韓國文化研究所, 1989(3版), 塔出版社.
- 金完鎭(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韓國研究院.
- 金完鎭(1978), <失點本 重刊老乞大諺解에 대하여>, 《奎章閣》 2.
- 金完鎭(1992), <重刊老乞大諺解의 연구>, 《韓國文化》 13.
- 리득춘(1994), 《조선어 한자어음 연구》, 박이정.
- 朴炳采(1983), 《洪武正韻譯訓의 新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박태권(1976), 《국어학사논고》, 샘문화사.
- 박태권(2002), 《국어학사 연구》, 세종출판사.
- 愼鏞權(1995), <《漢清文鑑》의 漢語音 表記에 대하여>, 《언어연구》 10·11·12.
- 愼鏞權(2004),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文學》 42.
- 愼鏞權(2008),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 聲調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中國文學》 57.
- 安奇燮(1988), <朝鮮時代 對 漢語 譯音書의 正音·俗音 성격의 再考 — 序·凡例上の 記 술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10.
- 安秉禧(1996),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人文論叢》 35.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1987(5版), 塔出版社.
- 李敦柱(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 李丙疇(1966), 《老朴集覽考》, 進修堂.
- 李崇寧(1971), <洪武正韻의 認識의 時代的 變貌>,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 張馨實(1994), 《「翻譯老乞大」의 中國語 注音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論文.
- 鄭光(1974),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中國語音 表記 研究 — 四聲通解 歌韻內 諸字의 中聲表 記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64.
- 許雄(1955), <旁點研究>, 《東方學誌》 2.
- 遠藤光曉(1984), <《翻譯老乞大·朴通事》裏의 漢語聲調>, 《語言學論叢》 13, 商務印書館.
- 遠藤光曉(1990), 《《翻譯老乞大·朴通事》漢字注音索引》, 好文出版.
- 朱星一(2000), 《15、16世紀朝漢對音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 《洪武正韻譯訓》(1455年), 高麗大學校出版部 影印本(1973).
- 《翻譯老乞大》(1517年이전), 卷上下 亞細亞文化社 影印本(1980).
- 卷上 中央大學校出版部 影印本(1972).
- 卷下 仁荷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影印本(1975).
- 《翻譯朴通事》(1517年이전), 卷上 慶北大學校大學院 影印本(1959).
- 《四聲通解》(1517年), 奎章閣所藏本.
- 《老乞大諺解》(1670年),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3).

- 《朴通事諺解》(1677年),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4).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年序),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3).
《老乞大新釋諺解》(1763年), 卷一(零本), 미국 컬럼비아대학 東亞圖書館 所藏本.
《朴通事新釋諺解》(1765年),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4).
《重刊老乞大諺解》(1795년이후),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本(《奎2049》).

